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랴

(혼외정사 7)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혼외정사가 많이 있었다. 세기의 결혼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찰스 왕세자비 다이애나는 결국 파파라치의 추적을 따돌리다 교통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고, 국내에서는 꽤 잘 나가던 남자 텔런트 강 아무개씨가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냥 폐인이 되다 시피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간통이라고 불리는 혼외정사의 전귀는 이혼, 폭력에서부터 살인까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임상적으로 볼 때 혼외정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도 모르면서’ 마음을 홀랑 뺏겨 버리는 경우가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섹스 파트너를 찾는 행태가 그것이다. 이른바 향락 산업으로서의 매춘과 관련된 것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결판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혼외정사는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률이지만 종족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에스키모 인들은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로 아내와의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탄자니아 투루족의 여인들은 남편 몰래 정부를 갖고 있으며, 이웃들은 그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 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남부 인디아의 나야족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성적 접촉을 지속하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물론 혼외정사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대부분 집안에 폭풍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보통이다. 때때로 간통 혐의로 피소되어 갇혀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보통 처음에는 실수로, 그 다음에는 알 듯 모를 듯한 정에 이끌려, 또 그 다음에는 습관이 붙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사랑을 찾아서’, 또는 결혼은 했으되 ‘몸 따로 마음 따로’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수없이 높은 도덕률과 자제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반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향락 산업과 접객업소가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늘 인내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훗김에 서방질 한다”는 속된 표현은 어감의 천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단명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촌스런 어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일단 생활의 기본인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외도 있다. 그러나 보통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화김에 서방질을 하거나 ‘열 받아서’ 색시 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에 찌들어 있는 남편, 아이들 뒤통다꺼리 하랴 시부모 눈치 보랴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한 아내, 이들은 어느 날 ‘노는 친구’ 뒤를 따라 춤추러 갔다가 엉뚱한 그물에 얽혀 들어간다. 일상의 권태로움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마약 같은 술과 현란한 조명, 그들은 아주 현실을 떠나 버리고 싶다는 착각으로 자신도 모를 발걸음을 옮긴다. 양심의 고동을 억지로 누르면서.

성서는 마음속으로만 한 간음도 간음이라 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된다. “과연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